‘지미불’ 100회…대학 포교 새 장 열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동국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불교동아리 장학생 100명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직접 수여
3년6개월 동안 67개 사찰 동참
재학생 2800명에 28억원 전달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15일 교내 남산홀에서 ‘제100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장학증서 수여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종립 동국대만의 대표 장학제도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100회를 맞았다. 사찰과 재학생들을 연결하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새로운 장학모델이자 캠퍼스 전법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5월 15일 교내 남산홀에서 ‘제100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성이 동국대 총장,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 이해원 의료원장, 박기련 법인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후원 사찰 주지스님, 장학생 100명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3년 6개월 동안 67개 사찰과 후원자들이 2800여 재학생들에게 28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열린 85회에는 637명, 91회에는 717명 등 대규모 인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날 100회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불교동아리 회원 100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은 단주와 불서 〈붓다〉를 전달했다.

이어 증명법사로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100회를 축하한다”며 “동국대는 전국 사찰과 사부대중에게 젊은 불교의 활발한 기운을 전해주며 모범적인 전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더 친근한 불교, 따뜻한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동국대 발전과 불교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1호 사찰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도 장학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100번의 장학금 수여 과정에서 담긴 절절한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은사스님이 물려준 정재를 상좌스님들이 장학금으로 전하기도 했으며, 사찰 행사마다 꽃을 팔고 보시금을 모아 장학금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감로수와 같았다. 희귀병으로 큰 수술까지 받고 학업을 포기하려는 순간 장학금을 받게 돼 다시 용기를 얻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부터, 목숨을 걸고 넘어온 남한에서 어렵게 공부를 시작한 탈북민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까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건학위원회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서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이 200, 300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 무산문화대상에 권여선·양성원·이태석재단 선정

5월 30일 시상식 개최
각 부문에 상금 1억원
23~25일 속초 일원서
설악무산문화축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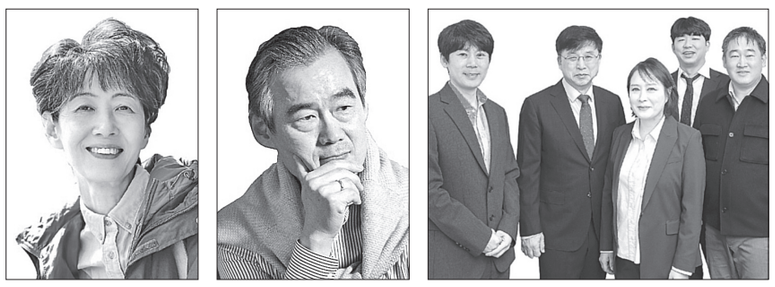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제2회 무산문화대상 문학 부문 권여선 소설가, 예술 부문 양성원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 사회문화 부문 이태석재단.

설악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의 제2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5월 12일 “제2회 무산문화대상 문학 부문에 권여선 소설가, 예술 부문 첼리스트 양성원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 사회문화 부문에 (사)이태석재단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 소설가는 1996년 장편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생을 받으며 등단한 이래 오영수문학상(2007), 이상문학상(2008), 김유정문학상(2021), 만해문학상(2024) 등을 수상한 문단의 중진 작가다.

무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장편소설 〈각각의 계절〉 등에서 나타나는 예민한 감각과 독특한 리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관통하며 현실의 표면에 미쳐 드러나지 않는 삶의 굴곡을 환기한다”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응시하면서도 연민과 공감의 끈을 놓지 않는 권 소설가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인 양성원 교수는 오스트리아의 뮤직페라인, 파리의 살 플레엘, 뉴욕의 카네기 홀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첼리스트다. 또 ‘페스티벌 오원’의 예술감독으로서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사회문화 부문 이태석재단은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사랑,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의료봉사와 교육, 빈곤 퇴치를 목표로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태석재단 선정 이유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봉사 활동과 지원사업이 상생의 정신과 나눔의 고결한 의미를 전파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확대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제2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은 5월 30일 오후 5시 그랜트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부문별 수상자에는 각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광장에서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을 개최한다.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은 제3회 설악청소년문화축전과 제2회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으로 구성된다. 무산 대종사의 문학·예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설악청소년문화축전에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대회, 댄스페스티벌, 백일장, 사생대회 등이 진행된다. 50여 개의 문화체험프로그램과 16개의 프리마켓도 펼쳐진다.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에서는 27개 지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신중일 기자

한국명상총협회, ‘강남힐링센터’ 운영

5월 13일, 강남구청서 협약식
외부 위탁운영으로 최초 사례



(사)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스님)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과 함께 ‘K명상’의 대중화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명상 플랫폼 운영에 나선다.

양 기관은 5월 13일 강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강남힐링센터(신사)’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한국명상총협회가 신사동에 위치한 강남힐링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명상을 기반으로 한 공공 힐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센터는 오는 6월 중 개관 예정이다.

강남힐링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정신건강 관련 수요와 웰니스 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공 정책이다. 신사센터는 강남구가 2020년 코엑스센터, 2021년 개포센터에 이어 조성하는 세 번째 힐링센터 거점이다. 특히 신사센터는 앞선 두 센터가 강남구청 직영인데 반해 첫 외부 수탁운영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각산 스님은 “한국 고유의 간화선과 고대 명상인 안반선(아나빠나사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문 명상 및 싱잉볼 강좌를 통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과학원 ‘현대사회 마음’ 살핀다

5월 31일, 국제심포지엄

현대사회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조명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5월 3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주제로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케너스 펑 토론토대 교수가 ‘수용전념치료와 불교-융합과 분화’를, 최훈동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가 ‘마음공부와 자기 치유-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를, 김주현 강원대 명예교수가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최명희 경북대 강사, 이준엽 약산에 한방병원장, 김준형 오산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가 맡는다.

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엄은 한마음선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여수 흥국사 도솔암 화재…전각 3동 전소

5월 11일 발생…인명 피해는 없어



전남 여수시 영취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흥국사의 마지막 산내 암자인 도솔암(주지 보련 스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각 3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사진〉

화재는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발생했으며 극락전을 포함한 주요 전각이 완전히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 바람과 목조 구조 특성상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사찰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